

대만 불교의 성장 뒤에는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불광연구원, 15일 '대만불교 조직체계와 리더십' 조명

경상도 크기의 국토에 2300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 하지만 불교가 교육, 포교, 봉사 등 사회 각 분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나라. 현재 세계불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만불교의 조직체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만불교의 조직체계와 리더십'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대만불교는 현재 세계에서 한국불교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불교를 대표하는 4대 종파인 불광산, 중대선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의 현실적이고 사회참여적 성격과 함께 정관계를 비롯한 사회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체계와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열의가 높다.

대만 불교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양정연 한림대 연구교수는 대만불교 교육의 특징으로 "개장조나 특정개인의 사상, 저작을 학과 과정에서 배우거나 연구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복합대학원의 경우 인문 법사의 사상이 교과과정에 있으며 법고산은 성원 사상을 연구하며 법고 종풍을 잇는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또 불광산도 성운법사의 저작과 사상을 교과과정에서 학습·연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런 특징이 승가교육에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니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대만에서 주목받는 향광니승단은 교육은 지적인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활동과 수행을 같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 있다"며 "개인의 해탈 추구하고 함께 종교적 봉사와 헌신이 이뤄질때 종교인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불광산사의 인재양성을 예로 들며 "불광산도 승가교육은 지식과 의례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홍법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불광산 모든 별원과 분원은 지역 사회의 교육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끝으로 "한국불교의 조계종도 수행과 실천과정에 있어 출가자의 방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승가교육에서 사회실현을 담보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불교의 전법과 포교활동은 다양하다

이삼미 국립 대만대 겸임교수는 대만의 포교활동과 지면에 각 종파간 특색있는 위치 선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삼미 교수는 "대만불교는 1949년 중국불교회가 입성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이후 많은 종파들이 나누며 자유롭게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 종단은 각기 '인간불교', '자신, 의료, 문화, 교육의 4대불사', 불교교육기관 건설, 사

회사업을 주축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만의 경우 상좌제도의 개념이 없어 사찰을 물려주거나 법통을 이어가는 것에 구애 받지 않는 것이 그 각자의 특색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것이 순수불교의 색채를 넘어 사회 불교로 또는 민간신앙으로 자리하게 해 불교에 대한 반감을 적게하고 어릴 때부터 접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낳게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는 민중 참여 행사가 큰 사찰에 국한돼있다"며 "세부화된 지역구분, 특색있는 사찰간 접근을 통해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만 불교 지도자의 리더십은?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대만불교 부흥의 원동력을 각 종단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대만의 승가교육은 의식·의례 아닌 포교 사회실현 담보하는 프로그램 활용이 특징

한국은 큰 사찰에서만 민중참여 이뤄져 특색있는 사찰 모아 지역민에 다가가야

김호성 교수는 "대만불교 부흥의 역사는 그리 길다 할수 없지만 훌륭한 불교지도자들로 인해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대 종파의 대만불교지도자들 중 자제공덕회 증엄 선사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먼저 김 교수는 "영향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증엄 선사는 자비와 원력에 기반한 실천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동참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과학의 리더십 이론에 비추어 불대 증엄 선사의 리더십은 민주형이고 과업 지향형과 관계지향형의 절충이며 보살형 리더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추종자들에게 부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증엄 선사의 경우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로 자리 했는데 이는 증엄 선사 스스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자제공덕회 회원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실현을 대항한다는 자각을 가짐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증엄 선사의 관음적 리더십은 관음신앙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자 전법으로 전세계 불교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광산 개산 40주년 기념 조산에불 수지활동. 개산 초심을 다지기위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사륙산문 본산 굴산사 고대도시와 함께 조명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10월 20-21일 강릉 관동대에서 '고대도시 명주(溟州)와 굴산사(窟山寺)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강릉시와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는 10개년 중장기 학술조사 업무협약에 의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굴산사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보존·정비를 위한 발굴(시굴) 조사를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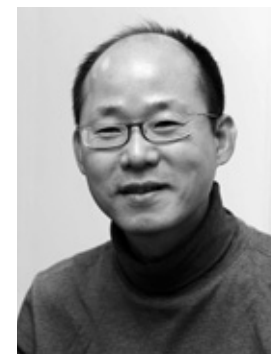
국제학술회의에서는 9세기 이후 한·중·일 동아시아 고대도시와 지방불교가 후대에 끼친 사상적 영향 및 문화유산 등에 대해 고고학·미술사·역사학·불교사상사·민속학·건축학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이 모색됐다.

한편, 강릉 굴산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사굴산문(窟山禪門) 본산으로 범일 국사(梵日國師)에 의해 개창된 이래 수차례 홍수피해로 인해 사역의 대부분이 유실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럼에도 강릉 굴산사에는 석조공예의 극치를 보여주는 굴산사지 승탑(보물 제85호)과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가 남아 있어 사세를 가늠해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천구 부산대 외래교수 '삼교지귀'로 지원 선정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이사장 범상)가 지원하는 올해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에 정천구 부산대 한문학과 강사가 선정됐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0월 18일 제 8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으로 번역부문에서 정천구 박사의 <삼교지귀(三敎指歸)>와 <변현밀이교론(辨顯密二敎論)>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교지귀>와 <변현밀이교론>의 저자는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우카이(空海; 774-835) 스님으로 <삼교지귀>와 <변현밀이교론>은 당시 일본 한문학과 불교의 이해 수준과 함께 문학, 사학, 종교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긴요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또 쿠우카이 스님의 구도과정을 보여줘 일본 진언종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제8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여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렸다. (02)539-2631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10월 30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육 기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 토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